

돌이켜 보는 모든 이야기가 역사였다

평화역사 이야기여행





인천 수원 파주 화성

평화역사

이야기여행

행정구역이 아닌 테마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바라보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우정을 다지기 위해서, 둘만의 로맨스를 위해서, 휴식과 쉼이 필요해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등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여행을 생각합니다. 그런 곳을 찾으려고 긴 여정을 계획하고, 목적에 꼭 맞는 여행지를 발견하면 그곳이 지구 반대편이라고 하더라도, 몇 시간이 걸려도 비행기나 배에 올라 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여행이 꼭 멀리 떠나야만 하는 것일까요?
내가 몰랐던 멋진 곳이 내 주위에 있다면 굳이 멀리 떠날 필요가 있을까요?

멀리서 찾지 않아도 멋진 곳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기에,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이기엔 마치 그 가치를 모르고 있던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땅,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곳곳을 여행지의 관점에서 다시금 살펴보고 그 가치를 재 조명해 보고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을 선정해 알리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10개 권역을 선정해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권역에 있는 3~4개 지방 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명소를 개선하고 연계하여, 테마가 있는 고품격 여행코스도 여행자들을 맞이합니다. 이 책은 바로 그 고품격 여행코스를 알리는 여행책자이자 가이드북입니다.



blog.naver.com/ktourbest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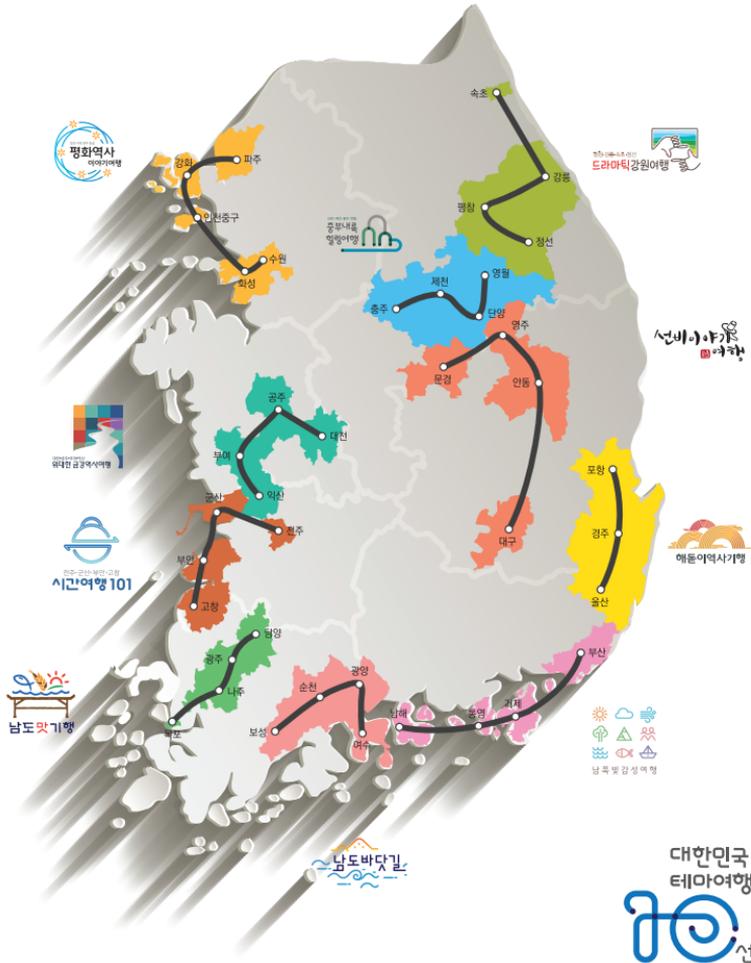


[instagram.com/ktourbest10](https://www.instagram.com/ktourbest10)



ktourbest10.visitkorea.or.kr

대한민국의 전국을 아우르는 총 39개의 도시, 10개의 색다른 테마가 당신의 여행을 더 즐겁고 가치있게 만들 것입니다. 꼭 보아야 할 곳, 꼭 들려야 할 곳을 혹시나 놓치고 지나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각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와 숨겨진 명소까지 남김없이 담았으며, 여행하는 동안 여행객 모두가 즐겁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가득 담았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은 당신의 여행을 더 즐겁고 가치 있게 만들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그곳으로의 초대

04. 테마여행 10선 사업 소개

그곳의 분위기

10. 권역 테마 소개

그곳의 이야기

12. 수원

18. 화성

24. 인천 중구

30. 인천 강화

40. 파주

그곳의 기억

그곳의 재미

그곳에 머무르기

14-17. 수원

50. 축제

54. 숙박

20-23. 화성

52. 쇼핑(음식, 특산물)

56. 교통

26-29. 인천 중구

32-37. 인천 강화

42-47. 파주

49. 보조코스

평화를 꿈꾸는 곳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다



인천 중구 월미공원



평화역사 이야기여행은 경기 수원과 화성, 인천 중구, 인천 강화, 파주를 연결하는 4박 5일 코스로 나라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준다.

애국과 독립의 역사가 있고 전쟁과 평화가 공존한다

정조가 꿈꾸던 새로운 조선이 담겨있는 수원, 정조의 효심이 깊이 새겨져 있는 화성, 애국과 독립의 근대역사가 담긴 인천 중구, 나라를 지킨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인천 강화, 분단의 아픔과 평화의 열망이 숨쉬고 있는 파주까지. 수도권에 위치한 이 다섯 지역이 '평화역사 이야기여행'이라는 테마로 하나가 됩니다.

서울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이 지역들에는 역사와 평화를 되새길만한 수많은 기억과 가치 있는 유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책이나 교과서 속에만 존재하는 역사는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절했던 역사의 흔적과 전쟁, 분단의 아픔을 두 눈으로 직접 마주할 때, 역사의 가치와 평화의 소중함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감동은 가슴속에 더 깊이 아로새겨집니다.

배앗으려는
자에 맞서,
지키려는 자의
아픔이 곳곳에
담겨있다

역사와 평화 이야기 외에도 이곳에는 여행객을 즐겁게 할 만한 다양한 재미가 숨어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과 화성 행궁을 보유한 수원, 해양테저의 파라다이스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화성,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위치한 인천 중구, 전국적 식도락 관광지로 유명한 인천 강화, 분단의 상징인 DMZ가 있는 파주까지. 이곳을 여행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나기 위해, 혹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마음의 여유를 찾기 위해 우리는 여행을 떠납니다. 무거운 짐을 챙겨 굳이 먼 길을 떠날 필요는 없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세상을 즐길 수 있는 열린 마음만 있다면 이곳으로 향하는 수많은 길들이 당신을 가볍게 인도할 것입니다.

역사와 평화가 담긴 곳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곳, 그곳이 바로 '평화역사 이야기 여행'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만한 성곽도시가 또 있을까?

수원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사람은 스포츠팀, 어떤 사람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 어떤 사람은 갈비를 떠올릴 지도 모릅니다. 모두 맞는 말이지만, 이런 수식어들은 비교적 최근에 생긴 수원의 특징입니다. 수원을 한 마디로 얘기한다면 도시 전체가 성으로 둘러싸인 성곽도시라는 것입니다. 그 성곽 안에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역사가 살아 숨 쉬고 있으며, 그 역사의 흔적들이 수원시내 곳곳에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수원의 대표적인 볼거리는 궁극의 건축미를 간직한 수원 화성과 화성 행궁, 거리를 공예의 물결로 물들인 공방거리, 화장실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해우재, 도시와 호수가 한 폭의 그림처럼 어우러진 광고호수공원, 조각작품으로 공원을 채운 효원공원과 월화원, 신여성의 표본인 나혜석의 동상이 세워진 나혜석 거리 등이 있습니다. 정조를 모신 화령전과 전통 초가집의 가치를 보여주는 수원 광주이씨 고택, 정조가 꿈꾸던 세상을 실현시킨 다산 정약용의 흔적들까지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여행에서 볼거리만큼 중요한 것이 먹거리가 아니던가요? 그렇다면 청춘의 열정이 담긴 지동교 푸드트럭, 세계적 치킨 브랜드도 깜짝 놀랄 통닭거리, 활력이 넘치는 수원 남문시장 등을 방문해도 좋을 것입니다.



수원화성 북문루



수원 광교호수공원



해우재

지금껏 외면 받던 화장실에 대해 낯날이 알려 줄 유일무이한 박물관이다. 심재택 전 수원시장은 자신의 집을 커다란 변기모양으로 리모델링하고 '근심을 푸는 집' 해우재라 이름 지었다. 화장실의 역사 및 세계의 화장실도 구경할 수 있다. 해우재 문화센터에서는 똥 모형을 보고 만지는 체험을 하고 똥으로 지은 동시는 박장대소를 일으킨다. 해우재에서는 하루가 즐겁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458번길 9

☎ 031-271-9777



화성행궁

행궁은 왕이 지방으로 행차를 할 때 임시로 머물던 곳을 말한다. 1789년(정조 13년)에 지어진 화성행궁은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현릉원으로 이장하면서 참배할 때 머물던 행궁이다. 한양에서 화성까지 33km. 8일간의 '행복한 행차'라 하여 행행(行幸)이라 이름 붙였다. 봉수당은 화성행궁의 중심인 정전(正殿)이다. 만년의 수를 받들어 빈다.'는 뜻으로 어머니의 장수를 기원하며 지었다. 행궁은 복원사업으로 옛 모습을 되찾고 있다. 정조가 능행했을 때 선보인 행사도 진행되는데 대표적으로 무예시범이 있다. 매일 오전 11시 붉은 무복과 무기들을 든 무예24기 시범이 열린다. 주말에는 정조대왕의 행차를 재현하고 궁중 무용과 탈춤, 줄타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가 함께 선보이니 놓치지 말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25 ☎ 031-228-4480





공방거리

화성행궁에서 팔달문까지 이어지는 거리를 '아름다운 행궁길'이라 부른다. 아기자기한 공방이 개성있는 간판을 단 공방거리로 알려졌다. 화려한 벽화는 마을 사람들이 뜻을 모아 직접 그렸다. 행궁동 마을 풍경을 직접 색칠하고 엽서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컬러링 카드 체험과 타일 꾸미기, 인두화까지 나만의 공예품을 만드는 체험은 물론 기념품을 구입할 수도 있어 색다른 여행이 된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127번길

역사 여행을 넘어 평화를 탐사 해야 하는 곳이다



화성 전곡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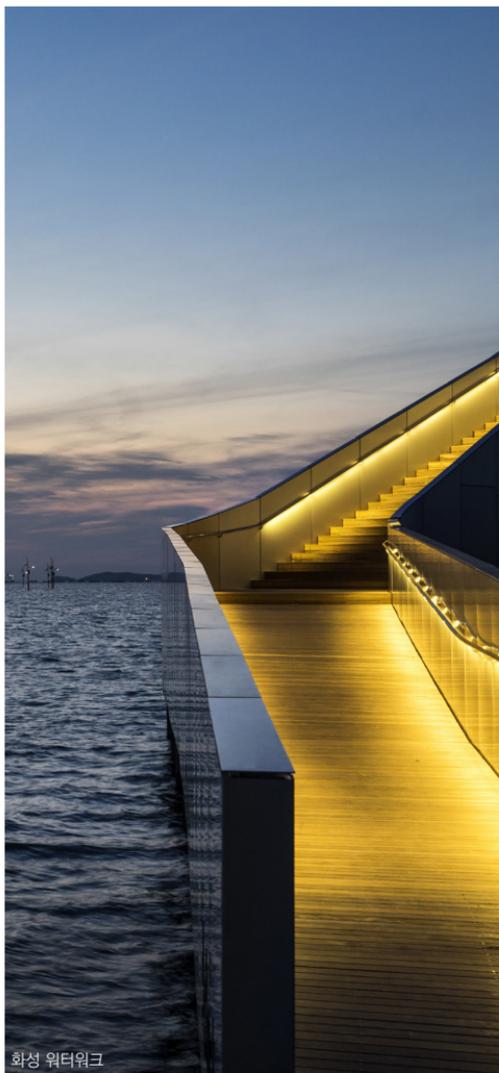
은하계의 행성과 같은 이름을 가져서일까요? 화성이라는 지명은 사람들의 묘한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래서인지 화성은 마치 여행을 넘어 탐사를 해야 할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화성에 위치한 매항리는 전쟁의 상흔과 국가폭력의 피해가 그대로 남아있는 아픔의 현장입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부터 2005년까지 54년 동안 매항리는 미공군의 사격 훈련장이었습니다. 하루 13시간 이상, 1년에 250일 이상을 매항리의 하늘을 가로지르던 공군기는 1.6km 떨어진 농섬과 곡섬을 해상 표적으로 무수히 많은 포탄을 쏘아 댔습니다. 삶의 터전과 고향을 버리고 외지로 나갈 수도 없

있던 마을 사람들은 54년 동안을 비행기의 굉음과 엄청난 폭발음, 총알의 날카로운 소음을 묵묵히 견디며 살아야 했습니다. 2005년 8월 마을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폭격장을 폐쇄시켰고, 마을은 마침내 고향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매향리는 평화를 상징하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미군부대가 철수한 곳에서 수거한 탄환과 폭탄은 예술작품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매향리는 이제 평화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성지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화성에서 대표적으로 가볼 만한 곳은 사도세자가 잠들어 있는 용건릉과 정조의 효심으로 지은 용주사, 3.1운동 순국 기념관이 있는 제암리, 풍요로운 바다를 품은 궁평항, 해양 레저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전곡항, 모세의 기적이 펼쳐지는 제부도, 무명 순교자들의 넋을 기리는 남양성모 성지 등이 있습니다.

전쟁의 아픔이 아픔으로만 끝나지 않고 평화의 염원으로 다시 태어난 곳, 조선시대와 구한말의 시대정신을 함께 한 곳, 그곳이 화성입니다.



화성 워터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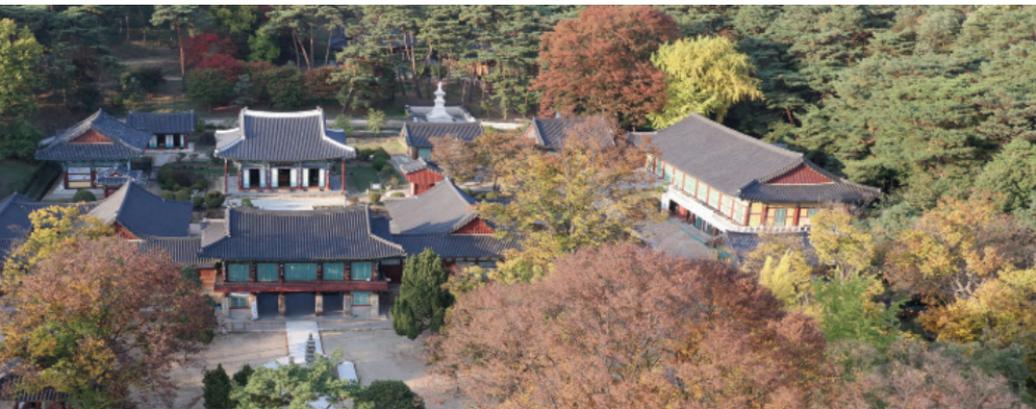


용주사

신라 때 창건 되고 고려 때 소실된 것을 정조가 사도세자를 위해 이장한 현릉원을 조성하며 1790년 새로 조성되었다. 낙성식 전날 정조가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꿈을 꾀 용주사로 이름 붙였다. 궁궐양식을 사용한 능침사찰로 일반 사찰과는 다르다. 일주문을 지나 만나는 홍살문은 잡신을 막아주고 부모의 은혜를 설법하는 부모은중경탑 뒤로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 정조대왕과 효의 왕후의 위패가 모셔진 호성전이 있다. 대웅보전과 시방칠등각이 있어 유교와 불교, 민간신앙이 모두 모인 절이라는 것이 재미있다.

경기도 화성시 용주로 136

☎ 031-234-0040



용건릉

1789년 정조가 아버지를 위해 조성한 현릉원이다. 현릉원이 만들어진 해부터 사도세자가 장조로 추존된 1899년까지 110년에 걸쳐 조성된 특별한 왕릉이다. 아버지와 죽어서라도 함께 하고 싶다는 정조의 유언대로 용릉의 동쪽에 조성되었다가 정조의 비 효의왕후가 승하하자 용릉의 서쪽에 정조와 효의왕후를 합장한 건릉을 조성해 정조의 유언대로 아버지 곁에 영원히 잠들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481번길 21 ☎ 031-222-0142





제암리

일제의 탄압에 폭력시위와 격렬한 저항을 했던 마을은 '제암리 학살사건'으로 끔찍한 보복을 당한다. 일본군이 주민을 교회로 몰아놓고 총을 쏘고 불을 질렀으며 방화로 가옥 300호 이상을 불태웠다. 근대에 일본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교회를 다시 지었지만 철거되고 그 자리에 순국기념비를 세웠다. 화성지역의 3.1 독립만세운동과 제암리학살 유가족의 증언과 기록 등을 전시하고 매년 4월 15일에는 추모제가 열린다.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암길 50

☎ 031-369-16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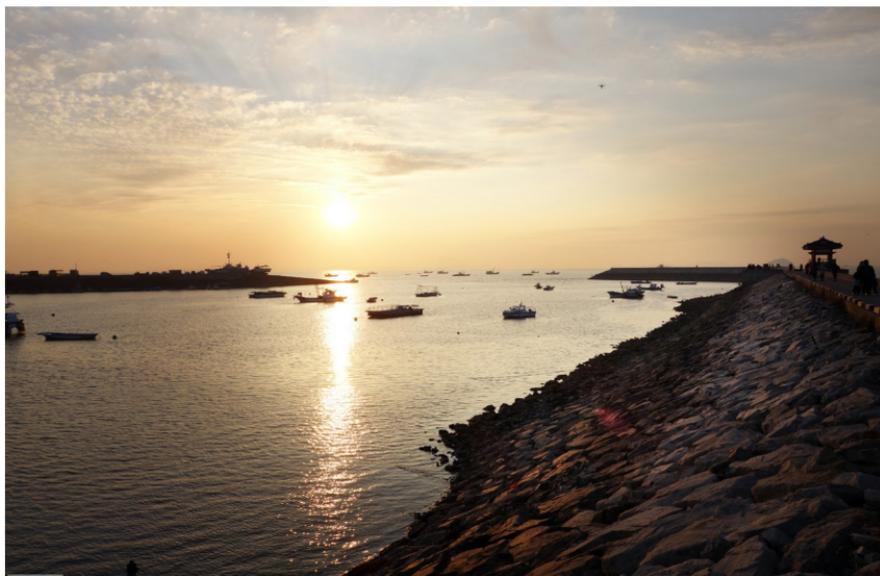
매향리(매향교회)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부터 2005년까지 미공군의 사격훈련장이었다. 1년에 250일, 하루 13시간 이상 매향리 마을을 가로지르는 공군기는 농섬과 곡섬을 해상 표적으로 포탄을 쏘아댔다. 그동안 섬은 1/3로 작아졌고 12명이 오폭과 불발탄으로 사망했으며 3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마을 사람들은 살던 고향을 버리고 외부로 나갈 수 없어 꾸역꾸역 견뎌나갔다. 결국 2005년 8월 마을 사람들의 힘으로 폭격장은 폐쇄되었다. 매향교회에는 수거된 포탄 파편과 작품으로 매향리의 이픔을 전시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 웃말길 15

☎ 031-358-0009





궁평항

궁평항은 2008년 국가 어항으로 지정될 만큼 풍부한 어획량을 자랑해 수산물을 구입하고 즐기기 위해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다. 바다 위에 나무 데크로 만든 피싱피어(Fishing Pier)는 강태공들의 낚시대로 북적이다. 휘어진 낚시대 끝에 태양이 걸리면 갈매기도 갈채비를 한다. 궁평항에서 보는 낙조는 화성 8경에 선정될 만큼 빼어난 절경을 자아낸다. 방파제 오른쪽 정자에 서면 당진화력발전소, 국화도, 입파도, 풍도, 도리도 위로 지는 해를 볼 수 있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로 1049-24 ☎ 031-356-7339

인천은 안 가 봐도 인천 중구는 꼭 가봐야 할 이유가 있다

인천 중구는 우리나라에서 개화기를 가장 앞장서서 겪은 곳입니다. 인천을 그저 서해의 항구도시 정도로 생각했다면 인천 중구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는 순간 지금껏 우리가 알고 있던 인천은 지극히 일부분이었다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고종 20년이던 1883년, 인천항의 개항으로 인천 중구 일대에서는 우리나라 개화기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초의 서구식 공원이 만들어지고 최초의 근대식 기상대가 생겼으며 해외 이민자도 최초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무선전신이 시작된 곳도 인천 중구입니다.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이곳에서 시작된 많은 것들이 오늘날까지 면면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화교들의 문화와 음식이 모인 차이나타운과 최초의 서구식 공원인 자유공원, 인천의 자연과 문화가 집약된 월미도, 근대의 역사가 흐르는 개항장 문화지구, 동화 속 낭만이 가득한 송월동 동화마을 등의 대표적인 관광지 외에도 아이들은 물론 온 가족이 함께 보고, 즐기고, 먹을 것들이 풍부한 곳입니다.

인천 중구의 대표적인 문화재로는 1897년에 건립되어 가장 오래된 서양식 근대 건축물 중 하나로 여겨지는 답동성당과 인천 개항의 역사가 담긴 구 인천 일본 제일은행지점, 대한민국 우정 역사의 출발을 알린 인천 중동 우체국,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팔미도 등대, 아들을 왕으로 만들어 달라는 흥선대원군의 기도를 들 어주었다는 전설이 전해오는 용궁사 등이 있습니다. 용궁사에 있는 두 그루의 느티 나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나무로 불리며 1,300년의 오랜 세월을 그대로 품은 듯 아름답고 멋진 자태로 용궁사를 더욱 신비롭게 만듭니다. 나무 밑에는 사람들의 소원을 적은 기왓장들이 쌓여 있어 지나는 이들의 눈길을 끕니다.





자유공원

1888년 11월 9일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근대공원이다. 1884년 체결된 '각국조계장정'에 의해 외국인 거류지가 생겼고 거주자들을 위한 공원을 만들었다. 광복 이후 만국공원으로 불리다가 1957년 맥아더 장군 동상이 세워지면서 자유공원이 되었다. 인천 개항기부터 식민지시대와 해방기를 거쳐 한국전쟁 전후를 이르는 한국 근대사가 이곳에서 일어났다. 해가 질 무렵 자유공원을 찾으면 노을과 함께 인천항과 예술 아카이브 아트 플랫폼, 인천대교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자유공원남로 25 ☎ 032-760-7597



차이나타운/동화마을

차이나타운

인천의 대표적인 여행지 차이나타운에는 1883년 개항 후 중국인이 들어오면서 화교 사회가 형성되었다. 공회춘 같은 중국 요릿집이 들어서고 부두노동자의 배를 채워주는 짜장면이 탄생했다. 중화요리점이 우후죽순 생겨나자 '맛집'을 찾아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러나 차이나타운에서 짜장면만 먹고 간다면 억울한 일이다. 문화개방과 함께 정착한 화교의 역사는 이제 인천의 독특한 문화가 되었다. 문화적 가치가 높은 차이나타운을 들여다보자.

인천광역시 중구 선린동, 복성동 일대 ☎ 032-777-1330

동화마을

인천항 개항 후 재화가 쌓이던 마을이었지만 오랜 침체로 활기를 잃었다. 빈집이 많던 침울한 마을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낡은 담벼락에 동심을 자극하는 동화를 테마로 만들었다. <선녀와 나무꾼>과 같은 한국 전래동화부터 디즈니 애니메이션 속 공주들까지 동심으로 손짓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동화마을길 38 일대 ☎ 032-760-6484

우리에게 평화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속해있다는 것을
잊었기 때문이다

_테레사수녀





월미도유람선/월미테마파크

강을 대표하는 유람선이 한강 유람선이라면 바다는 월미도 유람선이다. 인천상륙작전이 벌어졌던 곳으로 기념하는 조형물과 낙조 관련 조형물 등 선착장으로 가는 길이 심심하지 않다. 유람선을 타기 전 미리 과자를 준비해 게으른 갈매기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도 재미있다. 주말이면 일몰시간에 맞춰 출발해 유람선 내에서 저글링, 삼바 등의 공연과 불꽃놀이까지 볼 수 있다. 월미도 선착장을 출발해 영종도, 경인에너지 화력발전소, 영종대교, 작약도를 거쳐 원점회귀하는 코스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기상 및 선박 사정에 따라 운행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www.wolmidocruise.com)를 꼭 확인하자.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1가(월미도유람선) ☎ 032-885-0180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문화로 81(월미테마파크) ☎ 032-761-0997

강화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역사다



전등사

수 많은 외세의 침입을 가장 먼저 맞이 했던 곳, 그래서 외부 문물도 가장 빨리 접했던 곳, 강화. 그렇기 때문에 강화를 빼놓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말할 수 없습니다. 강화는 병인양요, 신미양요 등 서구 열강의 침입으로부터 조선을 지키고자 애쓴 민초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으며 그 이야기는 영화와 드라마로 다시 탄생하고 있습니다.

강화에는 한반도의 역사를 관통하는 유적도 가득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근리 지석묘를 비롯하여 역사적 유물들이 섬 전체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마니산 참성단에서는 매년 10월 3일, 개천절에 단군제를 지내며 단군의 건국이념을 기리고 있습니다. 강화 수호의 전초기 지였던 광성보와 덕진진, 호국의 굳건한 의지가 남아있는 강화전쟁박물관, 조선시대의 대포가 전시되어 있는 갑곶돈대 등도 가볼만한 곳입니다. 고려의 결기가 새겨진 고려궁지와 서양의 종교양식과 동양의 건축양식이 절묘하게 결합된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천오백 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현존하는 최고의 불교 도량인 전등사, 사시사철 계절의 운치가 제대로 살아있는 보문사 등 강화는 섬 전체가 역사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감을 모두 채우는 것으로 여행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여행자에게는 볼거리 못지않게 먹거리와 쉴 곳도 중요합니다. 강화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독특한 음식이 가득한 강화풍물시장과 석양이 담기는 온천으로 유명한 석모도 미네랄 온천 등이 우리의 강화 여행을 더욱 기억되게 할 것입니다.



광성보 용두돈대 전경

광성보

고려시대 몽고 방어를 위해 강화의 외성으로 지어졌으며 효종 7년 1645년 정식으로 광성보가 설치되었다. 작은 요새였던 이곳은 1871년 신미양요 당시 진무장군 어재연이 미 아시아함대 사령관 J.로저스가 이끄는 미군과 싸워 참패했고 이를 계기로 흥선대원군은 전국에 척화비를 세웠다. 신미양요로 부서진 성곽은 1976년에 복원되었다. 온몸으로 막아낸 의병의 얼이 고종이 세운 쌍충비에 고스란히 담겼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해안동로 466번길 27 ☎ 032-930-7070





덕진진(남장포대)

덕진진

덕진진은 자연 지형을 이용해 해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반월형 천연요새로 한강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마지막 방어선이다. 남장포대에는 100m 길이에 포자 15자가 늘어선 있었는데 현재 1/3이 복원되었다. 흥선대원군은 땅에는 척화비를, 바다에는 경고비를 만들었다. 비석에 적힌 '해문방수타국선신물과海門防守 他國船慎勿過'는 바다의 관문을 지키고 있으니 다른 나라의 배는 함부로 이곳을 지날 수 없다는 뜻으로 쇄국의 의지를 잘 엿볼 수 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덕진로 34 ☎ 032-930-7074



강화전쟁박물관

강화도는 외세의 부침에 시달릴 때마다 군사적 요충지 역할을 톡톡히 했다. 외국의 신흥 총에 보잘것없는 조총으로 대항하는 모습은 후손의 마음을 애잔하게 만든다. 갑옷에 견줄 만큼 든든하다고 이름 지어진 갑곶돈대를 둘러보며 호국정신을 되새기게 된다. 선사 시대부터 근현대까지 강화에서 일어난 전쟁에 대해 유물과 전시로 알려준다. 강화역사탐방을 위해 꼭 들러야 할 여행지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해안동로1366번길 18 ☎ 032-934-4291

강화풍물시장

풍물이라는 단어부터 정겹다. 재래시장보다 장터에 가까운 강화풍물시장에는 달달하고 알싸한 맛의 강화 순무와 속노랑 고구마를 비롯한 농산물과 의자에 앉아 손님에겐 관심 없는 상인이 정겹다. 매월 끝자리 2일과 7일에는 흥겨운 오일장이 열리고 상설시장도 있어 언제나 정겨운 시장을 만날 수 있다. 1층은 풍물장과 강화도 명물 밴댕이 회를 파는 회센터, 2층은 식당가라 허기가 밀려와도 걱정 없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17-9 ☎ 032-934-1318



고려궁지

1232년 6월 무신정권의 최고 실력자 최우는 고려정벌에 나선 몽골을 피해 고려 고종과 조정 신료들을 이끌고 강화도로 천도하고 이후 39년간 고려의 궁으로 사용되었다. 무신정권의 몰락과 함께 왕족은 다시 개경으로 돌아갔다. 조선시대에 전란에 대비하고자 고려의 옛 궁터에 장녕전을 지어 조선 태조와 세조의 영정을 모시고 강화유수부 건물들과 규장각을 건립해 장서와 문서를 보관했다. 건물은 대부분 병인양요에 불탔으나 불태워진 외규장각은 복원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 42 ☎ 032-930-7078





세계문화유산 강화지석묘

지석묘(支石墓)는 고여 있는 돌이란 뜻으로 강화고인돌은 고려산을 중심으로 부근리, 삼거리, 고천리, 오상리, 교산리 등 5개 지역에 흩어져 있으며 평지보다 산 능선과 정상에 150여 기가 분포하고 이 중 70기가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강화지석묘로 알려진 부근리고인돌(사적 137호)은 수백 톤의 덮개돌을 올리기 위해 수천 명이 동원됐을 것으로 추정될 만큼 장대한 크기이다. 남쪽에 남겨진 북방 문화의 흔적으로 보여진다. 고인돌은 신앙의 대상이자 주술의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덮개돌에 별자리가 새겨져 있어 그 흔적을 알린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317번지 ☎ 032-930-7090

평화를 원한다면 싸움을 멈춰라
마음의 평화를 원한다면
자신의 생각과의 싸움을 멈춰라

— 피터 맥윌리엄스



파주 평화누리공원



분단을 넘어 평화와 희망을 이야기 하다



파주 평화누리공원



전쟁을 겪은 이에게도, 겪지 않은 이에게도 분단이라는 단어는 마음 한편을 아프게 합니다. 본래 하나여야 할 대상이 둘로 나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은 수많은 사연과 애환을 짐작하게 합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 그래서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희망이 오롯이 담긴 곳, 그곳이 파주입니다.

분단으로 인한 남북 간의 극명한 갈등과 긴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DMZ와 개성공단을 내려다볼 수 있는 도라 전망대,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꿈을 꾸는 도라산역, 비무장지대 안에 위치한 특별한 마을 통일촌, 통일과 평화를 꿈꾸는 임진각과 평화누리, SNS의 성지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헤이리 마을, 출판을 넘어 문화를 만드는 파주출판도시 등은 꼭 파주에서 꼭 가봐야 할 곳들입니다. 파주에는 역사가 담긴 독특한 문화유산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파주의 삼릉과 장릉, 용미리 마애불입상, 윤관 장군묘, 울곡 이이 유적과 황희 선생 유적 등이 파주의 숨겨진 보석 같은 곳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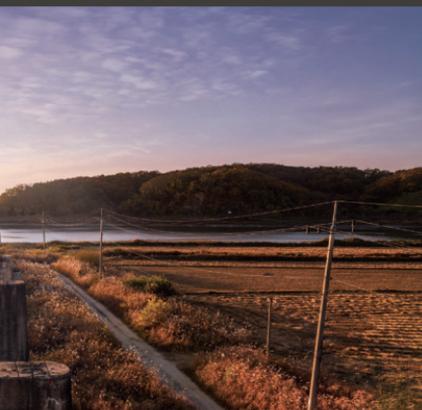
DMZ만으로도 파주는 국내외 관광객의 주목을 받는 곳이지만, DMZ 외에도 수많은 매력을 가진 곳입니다. 그 동안 파주의 걸모습만을 보았다면, 그 속에 담긴 파주의 매력을 꼼꼼하게 살펴볼까요?



파주임진각/평화누리공원

임진각은 1972년 실랑민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만들어졌다. 1953년 한국전쟁 포로들이 건너온 자유의 다리 위를 철책이 막아서고 있다. 총알의 흔적이 박힌 증기 기관차가 엔진을 데울 그날을 상상하며 임진각을 방문해도 좋겠다. 평화누리공원은 2005년 세계평화축전을 시작으로 3만평 규모의 야외공원에 언덕, 조형물도 이루어져있다. 남북을 자유롭게 오가는 바람처럼 북으로 평화를 전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48-53 ☎ 031-953-4744



파주DMZ관광(제3땅굴)

DMZ는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설치된 군사분계선으로 군사충돌을 막기 위한 완충지대이다. 1978년 북한이 남침을 위해 만든 제3땅굴의 발견되며 긴장감이 고조됐다. 판문점 4km지점에 수도 서울과 가까이 있어 위협적이었다. 땅굴은 도보나 레일을 이용해 관광할 수 있다. 한국전쟁 때부터 1990년대까지 미2사단이 사용하던 '캠프그리브스'가 한국으로 반환되면서 이색 숙박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48-53 ☎ 031-953-4744







헤이리 예술마을

예술가들이 모여 작업을 하고 생활하던 예술마을로 다양한 공방들이 자리잡고 있다. 입소문이 나자 국내외 유명건축가들이 전시장을 자청했다. 30여 채가 넘는 개성 있는 건물들이 들어서 촬영이 잦아졌고 마을을 찾는 사람도 늘어났다. 예술을 보다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생겼다. 세계의 민속 악기를 보고 듣고, 동화박물관에서 이야기를 즐기고, 도자기체험학교는 직접 그릇을 만들고 꾸밀 수 있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82-105 ☎ 031-946-8551





통일동산(오두산 전망대)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통일동산이 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에는 이산가족과 통일에 관련된 전시와 철조망으로 만든 피아노가 인상적이다. 북한의 도시나 문화를 영상으로 만나 볼 수 있으며 한국전쟁 당시 남북의 옷을 입을 수 있는 포토존도 있다. 전망대 광장에는 조만식 선생의 동상이 있다. 물산장려운동을 펼친 선생은 독립운동가로 활동했으며 민족주의를 주장한 반공의 대표적 인물로 전쟁 후 북한 내무성에서 살해된 것으로 전해진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필승로 369

☎ 031-945-3171

파주출판도시

출판사 사옥과 책방이 모여 있는 책마을이다. 지혜를 담은 책이 숲을 이뤘다는 지혜의 숲은 50여만 권의 책이 8m 높이의 책장에서 자란다. 아동서와 동화책, 소설과 시집 등 출판사의 성향에 맞게 구성된 책방을 구경하는 것도 즐겁다. 보통 같은 책들을 찾아나서는 것이 출판도시의 매력 중 하나. 출판도시라고 책만 있는 건 아니다. 다양한 풍채를 자랑하는 건축물은 국내의 건축가 40여명이 구성에 참여했다. 활판공방은 납활자 인쇄 공정과 활판인쇄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45(문발동) ☎ 032-955-0050(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우리는 평화를
찾을 것이다
천사의 소리를
들을 것이며
다이아몬드로
빛나는
하늘을 볼 것이다

_안톤체홉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
당신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울수록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누릴 가능성은 더욱 커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감각하고
냉정한 마음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찾는다는 것은 마음이 완전히
텅 비어버리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_ 달라이 라마



감성역사체험

수원 화성행궁 수원 공방거리 수원 벽화마을 수원 월화원
·나해석거리 수원 지교동 수원 광고
호수공원

← 화성 제부도 화성 전곡항 화성 매항리 마을 화성 남양성모성지 화성 용건릉 화성 용주사



나라사랑 역사교육 수학여행

개항장문화지구 차이나타운 송월동
동화마을 강화 광성보 강화 덕진진 강화 대명헌
(김구 방문고택)

← 파주헤이리
예술마을 강화 용흥궁
고려구지 강화 성공회
강화성당 강화 역사
자연사박물관 강화 지식묘 강화
로얄유스호스텔



노스텔지어 힐링여행

강화 풍물시장 강화 보문사 강화 석모도
미네랄 온천 강화 석모도
자연휴양림 파주 출판단지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

← 파주 마장호수 파주 감악산
줄렁다리

역사와 문화가 깃든 축제의 품격을 누려라!



수원 화성문화제

수원 화성문화제

'수원화성문화제'는 조선 제22대 정조대왕의 효심과 부국강병의 원대한 꿈으로 축성된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에서 10월에 개최된다. 수원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관광축제로 수원화성문화제의 하이라이트인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을 필두로 혜경궁 홍씨 진찬연 등의 전통재현행사, 그리고 수원천에서 아름답게 펼쳐지는 수원사랑등불축제와 수원화성 곳곳을 무대로 펼쳐지는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행사 등 국내외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준다. 과거와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문화예술의 고장 수원에서 각종 먹거리, 볼거리 등도 마음껏 즐기고 조선시대의 모습도 생생히 체험해 보는 축제이다.

시기. 10월 T.031-290-3622~5

화성 뱃놀이축제

화성 뱃놀이축제는 2019 문화관광 육성축제로 선정되며 국내 최고의 해양레저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곡 마리나항이라는 화성시의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고급 요트·보트 등의 승선체험과 육·해상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화성시 대표 여름 축제이다.

시기. 5~6월 T.031-8015-8278



화성 뱃놀이축제

*축제 일정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강화 고려산 진달래축제

강화 고려산 일원과 고인돌 광장에서는 매년 봄이면 고려산 진달래 축제가 열린다. 천년의 역사가 깃든 고려산의 진달래는 4백미터가 넘는 고지에서 꽃을 피워 장관을 이뤘다. 축제기간 동안 40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대표적인 봄꽃 축제다. 산중턱부터 펼쳐진 진분홍빛 진달래가 봄의 정취를 한껏 풍기며 등산객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고인돌 광장과 청련사 입구에 소규모 공연시설을 마련하고 버스킹 공연을 실시하는 등 축제의 폭을 넓혀 관광객에게 풍성한 즐길 거리도 함께 제공한다.

시기. 4월 T. 032-930-3624



강화 고려산 진달래 축제



강화 고려산 진달래 축제

파주 장단콩축제

국내 최대 농산물축제로 2년 연속 대한민국축제 콘텐츠에 대상을 받았고 경기도 10대 축제에 선정되기도 했다. '웰빙 명품 파주 장단콩'이라는 주제로 DMZ 청정환경에서 자란 파주 장단콩과 지역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브랜드화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되고 있다.

시기. 11월 T. 031-940-5282



파주 장단콩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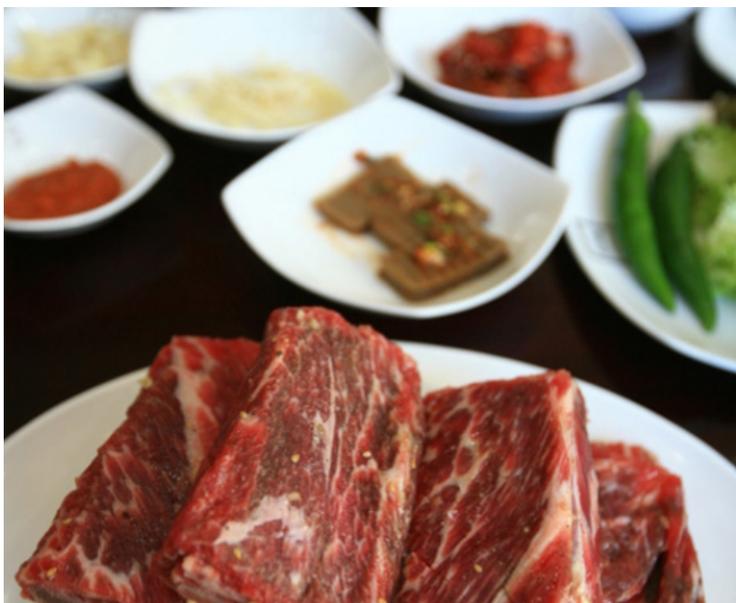


파주 장단콩축제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우리 지역 명물

수원-수원갈비

1950년대까지 전국에서 모여든 우시장으로 유명했던 수원의 특산물로, 갈비에 양념을 해 구워서 육질이 부드럽고 맛이 깊다고 알려져 있다. 수원갈비는 1985년 수원시 고유 향토음식으로 지정되었다.





인천 강화-화문석

고려시대부터 강화도의 특산물이었던 화문석은 길고 흰 것이 특징. 강화도의 습하면서도 따스한 기후 조건이 품질 좋은 왕골을 생산하는 기후 조건에 적합해, 강화도 전체 농가의 20%정도가 생산하고 있다.

파주-장단콩

장단콩이란 한반도 최초의 콩 보급품종인 '장단백목'에서 유래하였다. 민통선 내 경작지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심한 일교차가 장단콩 맛을 내는 요소 중 하나이다. 1990년대 들어 파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장단콩 브랜드를 육성하였고 1997년 임진각 광장에서 장단콩 축제가 진행되고 있다.



화성-포도

화성시 송산면은 서해 대부분, 제부도에 인접한 곳으로 여름에는 염분이 함유 된 해풍, 겨울에는 온화한 기온으로 인해 포도 재배에 최적화 되어 있고, 타 지역에 비해 수확철이 늦어 일조량을 많이 받아 포도의 당도가 높다.

숙박 안내

수원

뉴엠호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219번길 46-6	031-221-1557	http://www.newmhotel.com/	
수원호텔 꼬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219번길 46-14	031-233-8966	http://www.hotelcomo.co.kr/	
베니키아 뉴수원 관광호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 72번길 33	031-245-2405	https://www.benikea.com/	
베니키아 호텔 수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266번길 9	031-236-7112	https://www.benikea.com/	

화성

베니키아 더에이치 호텔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역골로 3-12	031-350-6200	http://www.thehotel.co.kr/	
롤링힐스 호텔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290	031-268-1000	http://www.haevichi.com/ rollinghills/ko	
푸르미르 호텔	경기도 화성시 호행로 480	031-8020-0000	http://www.hotelprumir.com	

인천 중구

허브 게스트하우스	인천광역시 중구 백년로9번길 8-1	010-6230-5242	http://blog.naver.com/hubgh	
호텔아띠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35번 길 88 (송학동1가)	032-772-5233	http://www.attihotelincheon. com/	

인천 강화

담담각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고려산로285번길 14-29	032-933-8737	http://damdamgak.co.kr/kor/	
장보고 한옥펜션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강화대로833번길 44-30	010-7155-3585	http://hanokp.modoo.at/	

파주

한옥체험마을 살림채	경기도 파주시 소라지로327번길 126-20	031-948-9898	http://slc98.com/	
---------------	-----------------------------	--------------	---	---



한국관광 품질인증 업소란?

관광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광 사업 범위 내,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관광품질인증 사무국의 인증을 받은 곳

*상기 속소는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베니키아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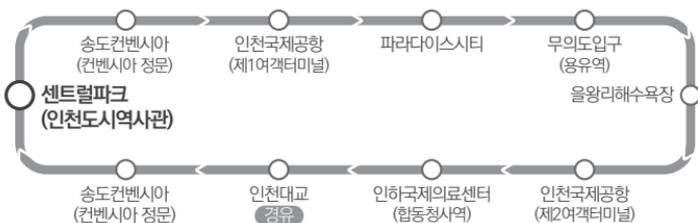
한국관광공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하에 국내외 여행객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체인브랜드 사업

*상기 속소는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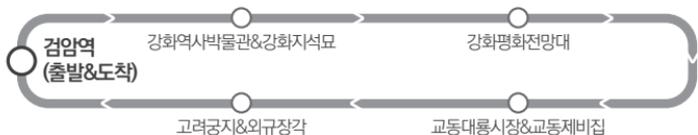
인천 시티투어
하버라인
 (송도~월미.개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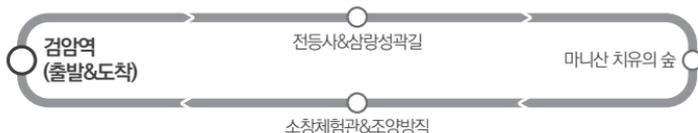
바다라인
 (송도~인천대교~영종)



강화도 테마투어
강화 역사투어



강화 문화체험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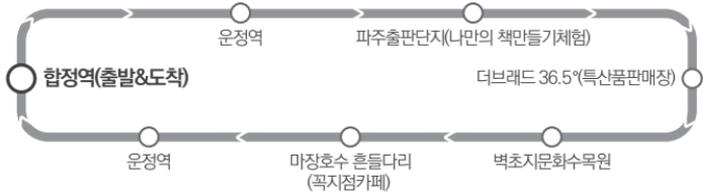


교통 안내

*자세한 사항은 관광안내소 및 해당 지자체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당일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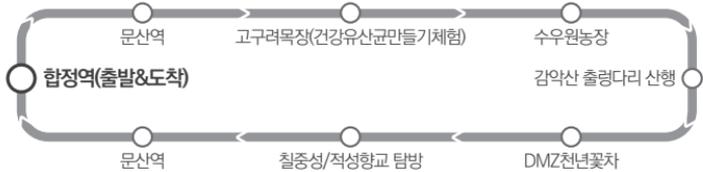
월 - 경기유망관광
10선 따라잡기
"파주의 숨은매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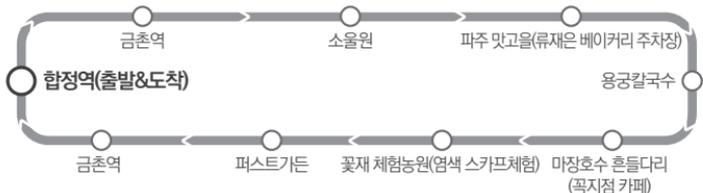
화 - DMZ는 평화를
신고... "임진강 황포
돛배 뱃길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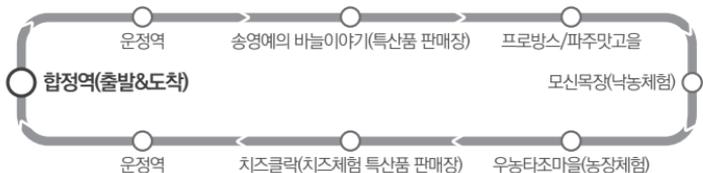
수 - 젊음을 찾아서
떠나는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목 - 매력 뽐뽐 청정
힐링투어!
"파주의 향기 속으로"



금 - 자연과 함께하는
"동물과의 교감여행"



*진행 코스 및 일정은 운영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발행처 한국관광공사
(26464)강원도 원주시 세계로10
TEL.033-738-3000

임진강역에서 도라산역까지
열차 탑승시간은 불과 5분이었지만
끊어졌던 경의선의 복구되기까지는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다.
‘타는 곳 평양방면’이라는 승강장 안내문구가
마음 한구석에 찜하게 와 박혔다.